

농어촌공사 공주시사, 농촌일손돕기 실시

윤 최형순 기자 | 승인 2025.04.17 10:15

| 풍년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배꽃 인공수분 일손돕기



농어촌공사 공주직원들이 작업 전 단체사진을 촬영하고 있는 모습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공주시사(지사장 박재근)는 지난 16일 공주시 사곡면에 위치한 과수 농가를 방문하여 일손돕기를 실시했다.

이날 공주시사 직원들이 공주시 사곡면에 위치한 과수 농가에 방문하여 배꽃 인공 수분 작업에 팔을 걷었다.

인공 수분은 배꽃이 피는 시기에 수분 매개 곤충이 부족할 경우 사람 손으로 꽃가루를 수분시키는 작업이다. 개화기간이 짧아 적기에 맞춰 작업해야 하지만, 최근 농촌 고령화로 일손이 부족한 상황이다.



배꽃 인공수분 작업 모습

박재근 지사장은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보탬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공사의 도움이 필요한 곳에 아낌없이 지원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농어촌공사 공주시사는 농촌 일손돕기 뿐만 아니라 복지시설 위문, 농촌 집고쳐주기 등 사회공헌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저작권자 © 충청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농어촌공사 공주시사, 농촌 일손 돕기 두 팔 걷어

이건용 기자 | 승인 2025.04.17 13:35



▲ 한국농어촌공사 공주시사 배꽃 인공 수분 일손 돕기. 농어촌공사공주시사 제공

한국농어촌공사 공주시사는 지난 16일 공주시 사곡면에 위치한 과수 농가를 방문해 일손을 거들었다.

이날 공주시사 직원들은 배꽃 인공 수분 작업에 두 팔을 걷었다. 인공 수분은 배꽃이 피는 시기에 수분 매개 곤충이 부족할 경우 사람 손으로 꽃가루를 수분시키는 작업이다. 개화기간이 짧아 적기에 맞춰 작업해야 하지만, 최근 농촌 고령화로 일손이 부족한 상황이다.

박재근 지사장은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보탬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공사의 도움이 필요한 곳에 아낌없이 지원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농어촌공사 공주시사는 농촌 일손돕기 뿐만 아니라 복지시설 위문, 농촌 집 고쳐주기 등 사회공헌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공주=이건용 기자 lgy@ggilbo.com



이건용 기자 lgy@ggilbo.com

한국농어촌공사 공주시사, 풍년기원 농촌일손돕

▲ 김상훈 기자 ⓒ 승인 2025.04.17 14:01

배꽃 인공수분, 주변 허드레 쓰레기 수거 및 집고쳐주기 등 사회공헌 활동



한국농어촌공사 공주시사는 지난 16일부터 관내 과수 농가를 방문해 농촌의 일손부족에 대한 돕기에 구슬땀을 쏟았다.(사진제공=농어촌공사 공주시사)



한국농어촌공사 공주시사는 과수 농가를 방문해 농촌의 일손부족에 적극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사진=봉사를 마친 직원들의 단체사진 촬영)

[충남일보 김상훈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공주시사는 지난 16일부터 관내 과수 농가 일손 돕기에 구슬땀을 쏟았다.

이날 풍년을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배꽃 인공수분과 주변 쓰레기 수거 및 집고쳐주기 등 각 일손돕기에 힘을 보탰다.

첫번째 방문지로 공주시 사곡면 과수 농가를 찾아 공주시 직원 10여명이 과수 농가에서 배꽃 인공 수분 작업에 큰 힘을 보탰다.

이날 시작된 인공 수분은 배꽃이 피는 시기에 수분 매개 곤충이 부족할 경우 사람 손으로 꽃가루를 수분시키는 작업들이 시작되면서 고령화로 인한 농촌 일손에 시너지 역할을 톡톡히 했다.

박재근 지사장은 "이번 공사의 지원으로 그동안 일손 부족으로 큰 어려움을 겪는 농가들에게 다소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공사는 장소와 시간을 구분없이 도움이 필요한 곳에는 아낌없이 나서 이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주시사는 농촌 일손돕기 뿐만 아니라 복지시설 위문, 농촌 집고쳐주기 등 사회공헌활동에도 게을리하지 않는 힘을 적극 보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중도일보

1951년 창간

中郡日報

joongdo.co.kr

한국농어촌공사 공주시사, 농촌일손돕기 실시

박종구 기자

최종 기사입력 2025-04-17 10:46



한국농어촌공사 공주시사(지사장 박재근)는 16일 공주시 사곡면에 위치한 과수 농가를 방문하여 일손돕기를 실시했다.

이날 공주시사 직원들은 배꽃이 피는 시기에 수분 매개 곤충이 부족할 경우 사람 손으로 꽃가루를 수분시키는 작업에 구슬땀을 흘렸다.

특히, 개화 기간이 짧아 적기에 맞춰 작업해야 하지만, 최근 농촌 고령화로 일손이 부족한 상황이다.

박재근 지사장은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보탬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공사의 도움이 필요한 곳에 아낌없이 지원 하겠다"고 말했다.

공주=박종구 기자 pj0066@

한국농어촌공사 공주시사 '과수농가 일손돕기' 봉사

✎ 이병인 기자 Ⓞ 승인 2025.04.17 10:30



'과수농가 일손돕기' 봉사 사진. / 공주시사 제공

[중부매일 이병인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공주시사(지사장 박재근)는 지난 16일 공주시 사곡면에 위치한 과수 농가를 방문해 일손돕기를 실시했다.

이날 공주시사 직원들이 공주시 사곡면에 위치한 과수 농가에 방문하여 배꽃 인공 수분 작업에 팔을 걷었다.

인공 수분은 배꽃이 피는 시기에 수분 매개 곤충이 부족할 경우 사람 손으로 꽃가루를 수분시키는 작업으로 개화기간이 짧아 적기에 맞춰 작업해야 하지만, 최근 농촌 고령화로 일손이 부족한 상황이다.

박재근 지사장은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농촌 일손돕기 뿐만 아니라 복지시설 위문, 농촌 집고쳐주기 등 사회공헌활동에 공사의 도움이 필요한 곳에 아낌없이 지원 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농어촌공사 공주시사, 농촌일손돕기 실시

▲ 이효섭 기자 ⓒ 승인 2025.04.17 11:31

| 풍년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배꽃 인공수분 일손돕기



한국농어촌공사 충남 공주시사가 과수 농가(사곡면)를 방문 일손돕기를 실시했다고 17일 전했다.

이날 직원들은 농촌 고령화로 개화기간이 짧아 적기에 맞춰 작업해야 하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과수 농가를 찾아 배꽃 인공 수분 작업에 팔을 걷었다.

한편 인공수분은 배꽃이 피는 시기에 수분 매개 곤충이 부족할 경우 사람 손으로 꽃가루를 수분시키는 작업이다.



박재근 지사장은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공사의 도움이 필요한 곳에 아낌없이 지원 하겠다"고 말했다.

/공주=이효섭기자

한국농어촌공사 공주시사, 농촌일손돕기 실시

○ 오정환 기자 | Ⓢ 승인 2025.04.20 16:11

| 풍년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배꽃 인공수분 일손돕기

매일일보 = 오정환 기자 | 한국농어촌공사 공주시사는 지난 16일 공주시 사곡면에 위치한 과수 농가를 방문하여 일손돕기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일손돕기 봉사 사진=공주시사

이날 공주시사 직원들이 공주시 사곡면에 위치한 과수 농가에 방문하여 배꽃 인공 수분 작업에 팔을 걷었다.

인공 수분은 배꽃이 피는 시기에 수분 매개 곤충이 부족할 경우 사람 손으로 꽃가루를 수분시키는 작업이다. 개화기간이 짧아 적기에 맞춰 작업해야 하지만, 최근 농촌 고령화로 일손이 부족한 상황이다.

박재근 지사장은“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보탬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공사의 도움이 필요한 곳에 아낌없이 지원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농어촌공사 공주시사는 농촌 일손돕기 뿐만 아니라 복지시설 위문, 농촌 집고쳐주기 등 사회공헌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